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만 믿어라

☞ 21면에서 계속

라.” 하시는 거죠. 그런 이치로 그 해골바가지와 뼈다귀들도 그렇게 한번 일어났다가 가라앉은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 조상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또한 내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이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예배를 올린다는 게 없는 법이죠. 모든 것은 본래 한자리이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밖으로 가질 않고 안으로 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곧 조상에게 하는 예배이면서 부처님께 하는 예배인 것이고, 또 동시에 나에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일체가 더불어서 함께 하는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는 자기한테 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조상님에게 했다고 해도 맞지 않으며, 부처님한테 했다고 해도 맞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예컨대 돈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물건을 사 오지만 거기엔 오고 감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 올 뿐이지 ‘돈을 저 사람에게 줬다. 그래서 물건을 받았다.’ 이런 게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연일 뿐이지. 그와 같이 법이란 오고 감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일 뿐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도 내 마음의 떡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그 마음의 떡 하나에 인등이 있고, 향이 있고, 청수가 있는데 일일이 떡을 들고 다니면서 제사를 지내려니 그게 얼마나 구차해요? 그건 오히려 조상을 모독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을 모독하는 거고요. 그건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모시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나와 조상이, 나와 부처가 하나인 줄 안다면 그럴 수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감사한 생각을 하되 늘 자기와 더불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질 않고 거죽으로만 조상님을 공양한다면 안 되죠. 그런다면 조상님의 중생적 모습만을 보고, 조상님의 참 근본인 진실한 부처의 모습, 모습 아닌 그 모습은 못 보는 셈이지요. 그런 사람은 참된 수행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뜻으로 본다면 조상과 부처가 함께 한 그 근본 자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몸이 춥지도 않은 그 법 안에는 법 양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자리엔 언제나 충만하게 물도 있고 향도 있고 등도 있고, 일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밝고 명랑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참뜻으로부터 잘 정돈된다면 조상님들도 다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집안에서 진짜 중이 한 사람만 나온다면 자손의 십 대뿐만 아니라 이십 대까지도 그 복덕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질문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큰스님 법문을 많이 듣고 봐 왔었는데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주인공을 찾고 있지만 금세 다시 저 자신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낙심하곤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과 경쟁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까지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 압박감과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면서 잠시 쉬고 있지만 결과물이 없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시험과 경쟁은 한 번은 넘어야 할 관문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감과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져 스스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몇 번이고 의문을 가집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서인지 하던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경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려워지기까지 하는데, 풍전등화처럼 생각에 휘둘리는 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데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自佛)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돼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어요.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요.

또 딴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요?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요. 저 봐요.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죠?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요.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 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다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요. 모르는 거는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올팡갈팡이 돼서 잘못돼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방록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서 내 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방록에서 말을 얼른 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드니 못 해요, 재산이 없어지니 못 해요,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붙여 놓고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 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경계에 부딪치면 욱하고 올라와요

질문 저는 마음공부를 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어떤 경계에 탁 부딪치면 욱하고 화가 먼저 치밀고 올라옵니다. 이런 경계도 공부거리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한바다가 되죠.

답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옆눈을 팔지 마라, 옆을 보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나도 한때는 그렇게 지내 봤습니다마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옆에서 잘못하든 잘하든 그거를 개의치 마라’ 이겁니다. 왜냐. 옆에서 잘못하는 거를 보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전자에 몰랐을 때 바로 내 모습이었다.’ 하고 안에다 놓아 버리세요.

이것이 그냥 억지소리가 아닙니다. 수없이 바뀌어서 돌아왔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없이 바뀌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못났을 때 그 모습, 잘났을 때 그 모습, 못했을 때 그 모습, 형편없는 그 모습이 모두 자기가 거쳐 올라온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음에 모든 걸 놓고 ‘둘이 아닌데, 그렇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마음 주인공 아니야?’ 한다면 그쪽도 바뀌집니다. 그거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이게 바뀌져야지, 말로 육신으로 해서는 외려 더 업을 짓게 되고 그건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거를 놓고 가야만이 다 버려서 다 얻는 거죠.

만약에 이거 잘못된 것 보이고 저거 잘못된 것 보이고 이러다가는 언제 그 길을 갑니까! 언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기 이전에, 그걸 봤으면 보는 대로 그냥 주워 넣어요. 그냥 보는 대로 주워 넣으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그냥 한바다가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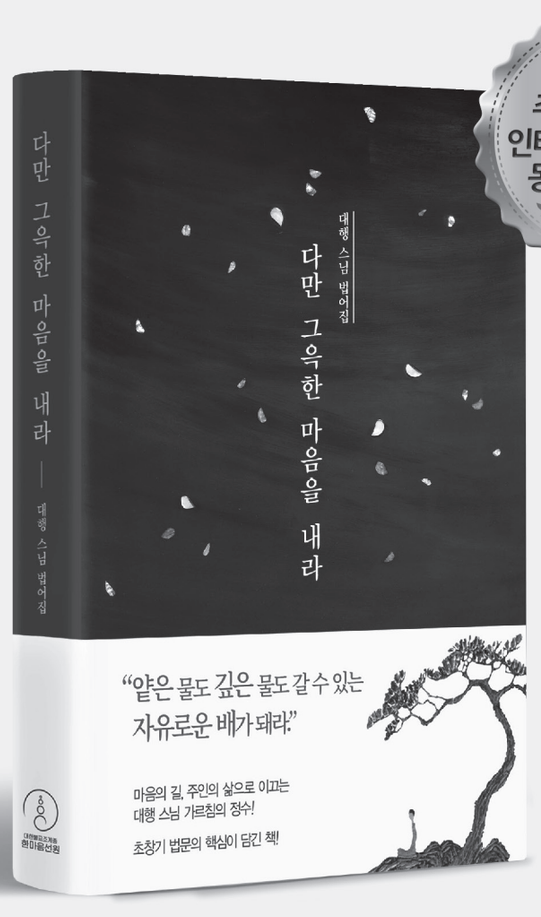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질문 요즘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의 불치병이었던 많은 질병들이 치료 가능해졌고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전자 조작도 가능해져서 그로 인한 질병 치료 및 생명체 복제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앞으로 복제 인간이 만들어진다면 그 모습은 닮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까지도 닮을 수 있을는지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되었다면 그 이전의 업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그렇게 복제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습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갖은 각색으로 마음이 찰나찰나 변하고 천차만별로 쓰이는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차원에 따라서 어떻게 될 테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몇 가지의 조목을 넣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넣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이 치유됐을 때, 그 업식보다도요, 업식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몸체를 볼 때에 그,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육등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면서 그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세포가. 다르니까 팀들이 다르단 얘기예요. 팀들이 다르니까 아, 생김생김도 다른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가지고서 사람 병 치료를 한다 이래도 그 유전자의 의식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딴 데 있던 그 유전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도 그 변함없이 그짓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뛸 줄도 모르던 사람이 아주 뜀박질을 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수술을 할 때 그 유전자를 넣고 다리 부러진 그 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뛸까요? 그 유전자는 차원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조금 생긴다는 얘기죠. 결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는 지금 말해서 장땡이죠, 뭐. 좋지 않은 거는 또 좋지 않은 대로 세세생생에 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좋은 거 반이라면 언짢은 거 반이 거기 속한다, 이런 뜻이죠.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